



해외출장 가이드

캐나다 벤쿠버 출장자료

【 목 차 】

I. 캐나다 개황	1
II. 캐나다경제 현황과 전망	3
III. 한·캐 경제교류	10
IV. 현지 체류 시 참고사항	17
V. 무역관 오시는 방법	23
VI. 현지 유관기관 및 한식당 안내 ..	24
VII. 무역관 직원 연락처	25
VIII. 유첨(캐나다 비즈니스 10계명) ...	26





I. 캐나다 개황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캐나다 (CANADA)
수 도	오타와(Ottawa) (* '교역하다'라는 뜻의 원주민어 'adawe'에서 유래)
면 적	9,984,670 km ² (세계 2위, 한반도 45배)
기 후	온대성 대륙성(중부내륙지방), 해양성(태평양 대서양연안), 한대성(북극권)
인 구	3,582만명 (2015.7월)
연방구성	10개 주(Province) 및 3개 준주(Territory)
주요도시	Toronto(606만 명), Montreal(403만 명), Vancouver(247만 명), Ottawa (132만 명), Calgary (141만 명), Edmonton (133만), Quebec City (80만) 등
언 어	이중 공용어 (영어 58% 및 불어 22%)
민 족	영국계 (28%), 프랑스계 (23%), 기타 유럽국가 (15%), 원주민 (2%) 기타 아시안, 흑인, 아랍계 (6%), 기타 혼혈 (26%)
종 교	가톨릭(43.6%), 개신교(29.2%), 기타(6.7% 이슬람, 유대교 등)
국 체	입헌군주국 (영연방)
정 체	의원내각제 (양원제)
화 폐	캐나다 달러(dollar) (* 1 CAD ≒ 0.73 USD)
건국(독립)일	1867년 7월 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원수: 영국여왕 Elizabeth II ○ 취임일: 1952.2.6
	○ 총독: David Johnston (수상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 ○ 취임일: 2010.10월 (5년 임기)
	○ 수상: Justin Trudeau (실권자) ○ 취임일: 2015.11.4



2.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2016(예상)
1인당 GDP(PPP)	US \$	52,345	50,252	43,331	40,409
명목 GDP	US \$	1.84조	1.78조	1.55조	1.46조
정부부채/GDP	%	88.8	88.1	86.8	—
경제성장률	%	2.0	2.4	1.2	1.5
물가상승률	%	1.2	1.5	1.6	1.7
실업률	%	7.1	7.0	7.1	7.1
*환율 (US\$/C\$, 연평균)	US \$	1.029	1.104	1.278	1.281(5월)
수출실적	US \$	4,582억	4,753억	4,098억	93억(3월)
수입실적	US \$	4,618억	4,636억	4,189억	94억(3월)
외환보유고	US \$	719억	756억	797억	845억(5월)
*금리(% , 연말기준)	%	1.00	1.00	0.65	0.5(5월)
총외채	C \$	1.63조	1.72조	1.89조	1.49조
외채 부채율 (Percent of GDP)	%	88.8	88.1	86.8	—
최저임금(C\$/H)	British Columbia : C\$10.45 , Ontario : C\$11.25				
산업구조	금융(20.0%), 제조업(17.1%), 무역(11.8%), 운송(4.7%), 통신(4.2%), 건설업(5.5%), 광업(3.7%), 농수산·임업(2.2%) 등				
주요 교역품목	수출 : 차량 및 부품, 기계, 기기, 천연가스, 석유, 목재, 어류, 농산물, 금속 수입 : 차량 및 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기·전자, 섬유류, 산업기계 등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중앙은행, IMF, Royal Bank of Canada



II. 캐나다 경제 현황과 전망

1. 캐나다 경제 현황

□ (경제성장) 2016년 캐나다 경제성장률 1.5% 전망

- IMF는 캐나다의 2016년 경제성장률을 1.5%. 2017년은 1.9% 수준으로 예측, 중앙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도 국제 유가의 하락과 기타 물가 상승으로 인해 1% 초반의 저성장율을 전망
- 2016년에도 글로벌 경제가 저유가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에너지 산업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경제는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지속 받게 될 것으로 예측. 반면, 환율 경쟁력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캐나다 경제지표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전망)
경제 성장률	1.8	2.0	2.4	1.2	1.5
물가 상승률	1.5	1.1	1.5	1.6	1.7
실업률	7.2	7.1	7.0	7.1	7.1
민간소비 증가율	2.1	2.3	2.9	2.8	2.8
수출 증가율	0.8	0.6	3.7	-14.7	-1.2(5월)
수입 증가율	2.4	-0.2	0.4	-9.7	0.0(5월)
설비투자 증가율	7.3	1.5	5.3	0.4	-4.2

자료원: Bank of Canada, Royal Bank of Canada, Bank of Nova Scotia



□ (환율) 미화대비 약세기조 지속 전망

- 2015년말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에 압박을 줄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美달러 대비 C\$0.6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최근 산유국들의 협의로 유가폭락세가 진정됨에 따라 하반기 70센트대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16년 5월말 기준, 美달러당 加달러 환율은 C\$0.76로 캐나다 연방은행의 정책금리 변경등의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캐나다달러는 반등없이 저환율 기조가 유지될 전망
 - 캐나다 중앙은행은 수출진작을 위해 원자재 가격하락에 대응한 금리인하·통화절하를 이어갈 전망

□ (대외무역) 에너지, 자원 위주 → 제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전망

- (수출) 캐나다의 최대 교역 상대인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캐나다의 수출 증가세가 한 풀 꺾인 것으로 분석
 - '15년 11월~ '16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던 캐나다의 수출은 2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 2월 캐나다의 무역수지 적자는 19억 달러로 최근 4개월 중에서 가장 큰 액수를 기록
 - '16년 1월~2월 대미 수출액은 9.0% 감소한 반면, 2, 3위 교역대상국인 중국과 멕시코로의 수출액은 각각 5.3%, 3.0% 증가
 - 캐나다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재 14.3%, 에너지 14.4%, 자동차 및 부품 4.4% 감소
- (수입) 에너지 자원 분야에 소요되던 철강 및 기계 품목의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캐나다 주력 제조업 분야와 관련된 소재·부품 및 기계장비에 대한 수요는 증가
 - 수입 역시 물량 기준 1.2% 및 금액 기준 2.6% 감소



- 대미 수입은 10.1% 감소, 중국과 멕시코로부터의 수입도 각각 7.8%와 3.8% 감소
- 자동차부품(14.3%), 엔진(16.0%) 등 운송장비 관련 제품이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원유(-47.8%), 금(-32.4%) 등 천연자원 수입액은 크게 감소

□ (금리) 현행 기준금리 0.5%로 동결

-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년 3월, 기준금리 0.5%를 동결함
 - 중앙은행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산업 분야 침체에 경기부양책으로 2015년 1월과 7월 각각 금리를 0.25% 인하함
 - 금년 하반기까지 경기부양책 효과가 미미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
 - 전문가들은 국제 상품 가격의 확연한 회복이 없이는 캐나다 경제가 향후 2년간 큰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빠르면 2017년 상반기 이후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3. 캐나다 대외 무역

□ 수출입 동향

- 2016년 캐나다 대외무역은 저유가, 캐나다달러의 약세로 대폭 감소

캐나다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5월)
수출	455,398	458,260	475,362	408,356	156,152
수입	462,303	461,867	463,641	418,959	163,185
무역수지	-6,905	-3,607	11,721	-10,603	-7,033

자료원: Statistics Canada



□ 국가별 수출입

- 캐나다의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중국, 영국, 멕시코, 일본 등임.
- － 미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는 최근 3년간 각각 77%, 53% 수준을 유지
- － 한국은 수출입 7위 기록

캐나다의 10대 수출입 대상국

(단위: US\$ 백만)

수출				수입			
국가명	2013	2014	2015	국가명	2013	2014	2015
미국	347,535	364,976	313,078	미국	240,610	252,095	223,143
중국	19,897	17,510	15,811	중국	51,208	53,111	51,322
영국	13,555	13,782	12,474	멕시코	25,953	26,106	24,397
일본	10,324	9,723	7,629	독일	14,954	14,454	13,556
멕시코	5,277	5,033	5,154	일본	13,341	12,061	11,556
인도	2,719	2,920	3,376	영국	8,183	8,336	7,185
한국	3,399	3,791	3,149	한국	7,125	6,560	6,161
홍콩	4,765	4,163	3,061	이탈리아	5,661	5,815	5,767
독일	3,331	2,826	2,825	프랑스	5,229	5,388	5,331
네덜란드	3,483	3,481	2,780	대만	4,578	4,187	4,268
기타	43,973	47,157	39,019	기타	85,024	75,527	66,273
수출총계	458,260	475,362	408,356	수입총계	461,867	463,641	418,959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품목별 수출입

-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석유가스, 정제유, 금, 제재목 등 에너지 자원과 산업용 원재료, 승용차, 자동차부품, 헬리콥터 등임.
 - 캐나다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약 80%를 미국으로 수출함
 - 원유는 캐나다 최대 수출 품목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
- 원유와 승용차는 캐나다의 최대 수출품인 동시에 최대 수입품
 - 다수의 캐나다 석유기업이 해외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 후 수입
 - 저유가로 인해 석유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원유, 화물차, 기계, 중장비 등은 수입이 크게 감소

캐나다의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US\$백만,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2015 (5월)	2016 (5월)	증감	품목	2015 (5월)	2016 (5월)	증감
1	승용차	16,941	20,459	20.8%	승용차	11,644	10,796	-7.3%
2	원유	21,966	13,702	-37.6%	자동차부품	7,852	8,652	10.2%
3	금	5,318	5,193	-2.4%	트럭	4,954	5,272	6.4%
4	자동차부품	4,443	4,418	-0.6%	정제유	4,726	3,722	-21.2%
5	정제유	5,703	3,461	-39.3%	원유	6,036	3,544	-41.3%
6	의약품	2,255	3,295	46.1%	전화기	3,686	3,226	-12.5%
7	제재목	2,998	3,103	3.5%	의약품	3,153	3,052	-3.2%
8	액화석유가스	4,942	2,837	-42.6%	자동차처리기기	2,941	3,010	2.3%
9	헬리콥터	3,333	2,305	-30.8%	금	3,071	2,295	-25.3%
10	터보프로펠러	1,876	2,014	7.4%	가스터빈	1,632	1,944	19.1%
	총계	171,372	156,151	-8.9%	총계	176,64	163,185	-7.6%

주: HS Code 4단위 기준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4. 캐나다 시장특성

□ 지역별 뚜렷한 산업구조

- 캐나다는 동, 서부로 나뉘며 두 지역간 주요 산업 및 특징이 다름.

☞ 현지 시장 진출 시 해당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구분	지역	GDP 비중	주요산업 및 특성
동부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시아, 마니토바, 뉴펀들랜드,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약75%	- 제조업체(항공, 자동차, 철강 등) 집중 - 대부분의 유통망 본사 소재
서부	BC, 알버타, 사스캐처원	약25%	- 1차 산업 및 서비스업 발달 * BC주: 임수산물, 광물 * AB,SC주: 광물, 농산물

□ 미국 의존성이 높고 완제품 위주의 시장

- 미국은 캐나다의 가장 큰 교역국으로, 전체의 약 65% 차지 (수출 76%, 수입 52%)
 - 미국 경기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으며 다른 국가제품이 미국을 통해 재수입되는 경우도 많음
- 캐나다는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못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완제품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아시안계 이민자 시장 급성장

- 캐나다는 다민족주의(multi-culturalism)사회로 민족별 특성상품 시장이 존재하며 민족간 소비패턴이 상이함
 - * 오랜 이민역사를 바탕으로 한 독일, 이탈리아계가 대도시 상권 형성
 - * 소비패턴 (유럽계) 스포츠, 레저, 문화활동에 대한 소비 강함
(중국계) 주택, 자동차 등 고액 소요 분야 소비력 강함
- 최근 중국, 인도계 이민 급증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에서도 이민계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개



- * BC주 식품업 바이어 상당수가 아시아계임 (밴쿠버는 아시아계가 주류)

□ 제품별 상이한 유통망의 통합 추세

-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가전, 생활용품, 식료품, 의류, 주류 등 제품에 따라 상이한 유통망 존재
 - * 가전: 퓨처샵, 라디오셱, 베스트바이 등
 - * 주류: BC Liquor store
 - * 생활용품: 캐나다언타이어, 로나, 홈디포
 - * 식료품: 로블로, 슈퍼스토어, 세이프웨이, 프라이스마트, 한인매장 등
 - * 의류: 백화점(The Bay, Sears, Zellers), 스포츠체크 등
- 최근 유통망의 치열한 경쟁 및 실적 감소 등으로 유통망들이 기존 취급하지 않은 제품을 취급 시작
 - * 월마트사: 그로서리, 약품, 안경테 등 10만여종의 상품을 취급
 - * 베스트바이사: 가구, 장난감, 미용용품, 자동차 관련 제품을 취급



III. 한·캐 경제 교류

1. 대 캐나다 교역 현황

□ 수출입 동향

- 2015년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은 전년대비 6% 하락한 46억 달러, 수입은 27% 감소한 약 40억 달러를 기록
- 韓-캐나다 교역량은 2013년 이후 수출과 수입이 하락하는 추세
 - 최근 캐나다는 저유가 등 국제 자원 가격 하락으로 인한 광업 부문 활동 침체, 사상 최대에 근접한 무역 적자 규모, 민간소비 하락,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
 - 한-캐 교역현황(억불): ('10) 84.5→('11) 115.4→('12) 100.7→('13) 99.2→('14) 103→('15) 86
 - * 2014년에는 100억불대의 교역추세는 유지하였으나, 수출이 크게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유연탄, 동광, 우라늄, 목재 등의 수입은 대폭 증가
 - * 2015년,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이 지속되며 수입금액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체수입이 격감

<캐나다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5월)	증감률
수출	4,828	5,205	4,917	4,623	1,822	8.3%
수입	5,247	4,717	5,443	3,983	1,528	-16.4%
무역수지	-419	488	-526	640	294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로는 한국은 자동차 및 부품, 무선전화기 등 공산품 수출이 활발하며, 캐나다는 유연탄, 동광, 펄프 등 1차 산품 수출이 활발한 상호보완적 구조



－ 상위 5 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60%를 점유

* ①자동차(19 억불, 총수출의 43% 점유), ②자동차부품(2.3 억불, 4.9%), ③철구조물(1.7 억불, 3.7%), ④ 휴대폰(3.1 억불, 6.8%), ⑤타이어(0.9 억불, 2.0%)

－ 2015년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광물자원, 펄프 등 주요품목의 수입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에너지자원 품목 수입 비중은 68%에 이름

한국의 對캐나다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US\$백만, %)

순위	품목명	2015		2016(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승용차	1,987	-8.1	928	-5.8
2	자동차 부품	227	-16.3	84	-13.1
3	무선전화기	315	-0.7	59	-39.9
4	타이어	94	3.1	34	-5.1
5	합성수지	68	6.0	33	-10.1
6	철강 및 비합금강	69	-20.3	29	19.2
7	철구조물	170	453.4	28	-27.0
8	펌프	62	7.9	25	-3.2
9	섬유기계	53	-19.3	23	24.9
10	기타 플라스틱 제품	55	-4.2	21	-10.8
총계		4,623	-6.0	1,822	-8.3

한국의 對캐나다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

순위	품목명	2015		2016(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동광	468	-18.4	259	53.6
2	유연탄	852	-36.1	229	-53.3
3	펄프	220	-14.6	96	18.3
4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31	-82.0	76	328.3
5	칼륨비료	155	-7.0	75	-15.6
6	철광	133	-54.3	54	17.2
7	원목	133	-4.2	50	-18.5
8	가축육류	102	5.5	41	-20.6
9	제재목	73	4.6	31	-7.8
10	식물성 유지	70	23.9	30	11.1
총계		3,983	-26.8	1,528	-16.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 한-BC주 수출입

- 2015년 기준 BC주의 對한국 수출액은 전년대비 16.9% 감소한 31억 달러, 수입액은 6.1% 감소한 61억 달러를 기록
- 주요 수출품목은 대부분 유연탄, 동광, 알루미늄 등 원자재이고, 수입품목은 경유,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산업원부자재 및 완제품임.

BC주의 對한국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 US\$백만,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5월)	증감(15/16)
수출	1,898	1,769	1,943	1,469	497	-20.5%
수입	1,136	1,123	1,059	888	297	-24.1%
무역수지	762	646	884	581	200	-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BC주의 10대 對한국 수출 및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수출 품목 (HS code)	수출액	수입 품목 (HS code)	수입액
유연탄(270112)	189	H형강(721633)	20
동광(260300)	150	콘크리트 펌프(841340)	16
우드전봇대(440320)	27	열교환기(841950)	15
제재목(440710)	26	열연강판(721070)	11
화학 우드펄프(470321)	25	파이프(730511)	10
반화학 우드펄프(470500)	17	무선전화기(851712)	9
식재료(210690)	11	냉장고(841869)	8
카놀라 오일(151411)	9	변압기(850423)	7
항공기부품(880330)	4	굴삭기(842952)	7
알루미늄스크랩(760200)	3	드라이기(845129)	7
총 수출액	497	총 수입액	297

주: 2016년 5월 기준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2. 한-캐 투자 동향

- ◇ 2015년도 對캐나다 해외직접투자 규모(신고 기준)는 6.6억불로 전년(15.2억불) 대비 56.5% 감소
 - 업종별로는 광업(△63.2%)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주요 업종에서 투자가 감소
- ◇ '16년에는 글로벌 공급과잉,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세계 및 캐나다 경제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해외직접투자는 감소 또는 정체 예상

□ 한국기업의 對캐나다 투자

- (연도별) '15년도 해외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는 전년(15.2억불) 대비 56.6% 감소한 6.6억불을 기록 (송금 기준으로는 전년(10.5억불) 대비 51.4% 감소한 5.1억불)
 - 2014년 15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 연도별 1/4분기 동향 역시 지속 감소

한국기업의 對캐나다 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

(단위 : US\$백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분기)
신고금액	1,887	878	882	1,519	660	60
신고건수	99	102	83	102	89	18

자료원 :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등

- (분기별) '16년 1/4분기 기준, 우리기업의 對캐나다 투자(신고기준)는 前분기(79.3억불) 대비 24.3% 감소한 18건 0.6억불을 기록. 전년 동기(1.55억불) 대비 61.3% 감소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신고기준)

(US\$백만, 전분기대비 증감률 %)

	2013				2014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신고액	475	50.5	145	212	729	526	98	165	155	350	76.0	79.3	60.0
증감률	289	△89.4	187	46.2	244	△27.8	△81.4	68.4	△6.06	126	△78.3	4.34	△24.3

자료원 :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등



- (업종별) '15년도 對캐나다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순위는 광업(4.24억불), 제조업(1.25억불), 금융보험업(0.63억불), 도소매업(0.17억불)
- － 광업(△56.5%)·금융보험업(△16.5%)·부동산임대업(△98.2%)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제조업(171.2%)·도소매업(184.6%)은 증가. 매년 투자금액의 60~90%가 광업에 집중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

(US\$백만, 전년대비 증감률 %)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합계	882	100	0.4	1519	100	72.2	660	100	△56.5
광업	775.9	88.0	11.1	1166	76.8	50.2	424	64.2	△63.6
제조업	8.6	1.0	△81.4	46.0	3.0	436.1	124.8	18.9	171.2
금융 및 보험업	20.9	2.4	△21.5	75.1	4.9	259.6	62.7	9.5	△1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	0.2	△37.4	209.7	13.8	11014	3.9	0.6	△98.2
기타	74.8	8.5	△29.2	22.0	1.5	△70.5	44.8	6.8	103.4

자료원 :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등

□ 캐나다의 대한투자 동향

- (연도별) '15년 캐나다 기업의 대한직접투자는 전년(5.7억불) 대비 121.7% 증가한 12.7억불 기록, 2001년 기록한 15억 6백만 달러 이후 연간 최대치를 보임
- － 대부분은 캐나다국민연금(CPP) 투자위원회의 홈플러스 인수와 관련된 투자로 인한 것(7.9억 달러)으로 동 건을 제외할 시 '15년 4.8억 달러를 기록, '14년(5.7억) 대비 15.7% 감소

캐나다의 대한투자 신고금액

(단위 : US\$백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분기)
신고금액	739	394	388	572	1,268	108
신고건수	38	38	60	51	52	17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 (분기별) '16년 1/4분기 기준, 캐나다기업의 대한투자는 前분기 대비 89.4% 감소한 17건 1억800만불 기록. 전년 동기(4,100만불) 대비 161.4% 증가.
- 10억불을 상회하는 '15년 4/4분기 기록은 캐나다국민연금의 금융·보험업 분야 대규모 투자건의 영향.
- 실제 '16년 1/4분기의 투자 규모는 2억800만불을 기록했던 2002년 1/4분기 이후 1분기 기준 분기별 최대치 기록.

분기별 캐나다기업의 대한투자 동향(신고기준)

(US\$백만, 전분기대비 증감률 %)

	2013				2014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신고액	13.8	17.4	335	21.7	2.9	208	25.7	336	41.3	207	4.1	1,016	108
증감률	△43.5	25.8	1,823	△93.5	△86.5	6,983	△87.6	1,208	△87.7	401	△98.0	24,634	△89.4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 (업종별) '15년도 대한직접투자의 업종별 순위는 금융·보험업(7.86억불), 부동산 임대업(1.48억불), 식품제조업(1.35억불), 화공업(0.86억불)
- '14년 대비 금융/보험업(2.84백만→786백만, 27,574.8%)·제조업(129백만→290백만, 124.5%)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업(250백만→148백만) 등 기타 분야는 대부분 감소
- '11년 이후 추세는 제조업 분야 비중이 감소하고 금융서비스업 분야가 대폭 증가



주요 업종별 캐나다기업의 대한투자 규모(신고기준)

(US\$백만, 전년대비 증감률 %)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739.3	100	393.8	100	387.6	100	572.1	100	1,268	100
농축·수산·광업	1.0	0.1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729.4	98.7	156.7	39.8	14.0	3.6	129.0	22.6	289.6	22.8
식품	3.8	0.5	0.0	0.0	0.0	0.0	0.0	0.0	134.6	10.6
섬유·직물·의류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지·목재	0.0	0.0	0.0	0.0	1.0	0.3	9.1	1.6	0.0	0.0
화학	150.0	20.3	5.0	1.3	3.7	1.0	0.1	0.0	85.8	6.8
비금속광물	0.0	0.0	2.9	0.7	0.0	0.0	0.0	0.0	0.0	0.0
금속	360.2	48.7	20.4	5.2	9.0	2.3	2.2	0.4	0.0	0.0
기계·장비	15.0	2.0	0.0	0.0	0.0	0.0	104.0	18.2	2.1	0.2
전기·전자	100.3	13.6	123.8	31.5	0.1	0.0	10.2	1.8	66.4	5.2
운송용기계	100.0	13.5	4.5	1.1	0.1	0.0	0.0	0.0	0.7	0.1
기타제조	0.0	0.0	0.0	0.0	0.1	0.0	3.5	0.6	0.1	0.0
서비스업	8.3	1.1	237.1	60.2	373.6	96.4	443.0	77.4	978.7	77.2
도·소매(유통)	2.8	0.4	3.1	0.8	7.6	2.0	55.5	9.7	1.0	0.1
음식·숙박	0.2	0.0	0.9	0.2	0.5	0.1	0.5	0.1	8.4	0.7
운수·창고	0.3	0.0	0.1	0.0	11.7	3.0	0.1	0.0	30.0	2.4
금융·보험	2.4	0.3	225.6	57.3	330.8	85.3	2.8	0.5	786.0	62.0
부동산·임대	0.0	0.0	2.7	0.7	0.2	0.0	250.0	43.7	147.9	11.7
비즈니스서비스	2.2	0.3	3.7	0.9	2.0	0.5	134.2	23.5	5.3	0.4
전기·가스·수도·건설	0.6	0.1	0.0	0.0	0.0	0.0	0.0	0.0	0.0	0.0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IV. 현지 체류 시 참고사항

□ 대중교통

- (스카이트레인; 기차) 밴쿠버의 교통체계는 전체 광역밴쿠버를 3개의 존(Zone)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C\$2.75(1존)~C\$5.50(3존) 가격의 한 장의 티켓을 구입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90분간 모든 교통수단(버스, 스카이트레인, 수상버스(Sea Bus)를 이용할 수 있음. 평일 오후 6:30분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존 가격으로 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음.

광역 밴쿠버 대중교통 요금 존(Zone) 안내도



- (택시) 호텔 및 도심 외각지역에서는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좋으며, 기본요금은 C\$3.20부터 이후 54.44미터마다 \$0.10씩 과금됨. 요금의 10~15%의 금액을 기사에게 Tip으로 주는 관행이 있음.

※주요 택시: Yellow Cab(604-681-1111), Vancouver Taxi(604-871-1111)



□ 무선 인터넷(Wi-Fi)

- 밴쿠버에서는 한국만큼 와이파이망이 보급되지 않음. 호텔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커피숍이나 공립도서관 등에서는 쉽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한국에 비해 속도가 다소 떨어짐.

□ 복장(의류)

- 북위 49도 위치, 해양성기후를 띄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건조한 편. 11월은 한국의 초겨울날씨로 따뜻한 외투 필요
- 금융계 종사자, 공무원은 일반적인 정장차림(양복바지, 와이셔츠)이나 넥타이는 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방수와 방한기능이 있는 아웃도어도 즐겨 입음.

밴쿠버 일교차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기온	15.3	18.4	19.4	25.0	30.4	30.6	34.4	33.3	29.3	23.7	18.4	14.9
최고 평균기온	6.1 (43)	8.0 (46.4)	10.1 (50.2)	13.1 (55.6)	16.5 (61.7)	19.2 (66.6)	21.7 (71.1)	21.9 (71.4)	18.7 (65.7)	13.5 (56.3)	9.0 (48.2)	6.2 (43.2)
최저 평균기온	0.5 (32.9)	1.5 (34.7)	3.1 (37.6)	5.3 (41.5)	8.4 (47.1)	11.2 (52.2)	13.2 (55.8)	13.4 (56.1)	10.5 (50.9)	6.6 (43.9)	3.1 (37.6)	0.8 (33.4)
강우량	139.1	113.8	111.8	83.5	67.9	54.8	39.6	39.1	53.5	112.5	178.5	160.6
강설량	16.6	9.6	2.6	0.4	.	.	.	.	.	.	2.5	16.3

□ 음식

- 밴쿠버 중심지 Robson Street를 중심으로 다수의 한식당이 있음
- 시내에 대형 한국식품 슈퍼마켓(H-mart: 590 Robson Street)이 존재

□ 전기

- 전압(주파수) : 110볼트(60 Hz)
 - 플러그 adaptor(돼지코) 휴대 필요





□ 치안

- 밴쿠버 다운타운은 비교적 안전하나, 밴쿠버 헤이스팅스가 동쪽지역 (East Hastings Street)은 Homeless들이 상주하는 등 주의 요함.

□ 세금 및 팁 관행

- 모든 제품, 서비스 구입 시 12%의 세금(주정부세+연방세)이 별도로 부가됨. 식당 이용 시, 세금 포함된 요금의 10-15% 수준의 팁이 일반적.
 - 6~8명 이상 단체손님 이용 시 16-18% 팁(Gratitude)이 자동으로 부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역서 확인 필요.

□ 현금사용

- 비자, 마스터 등 신용카드는 대부분 통용되나, 비상시 대비 현금 보유 필요
 - 화폐단위는 \$5, \$10, \$20, \$50, \$100이 보편적
 - 동전: 5cent = 니클 / 10cent = 다임 / 25cent = 쿼터 / \$1 = 루니 / \$2 = 투니

□ 입국 비자

- 1994년 한국과 캐나다 간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6개월 미만의 관광이나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무비자 방문 가능
 - 입국 심사 시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거나 방문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바, 입국목적, 체류기간, 휴대품(샘플 등)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주요 명소

○ 스탠리 공원 (Stanley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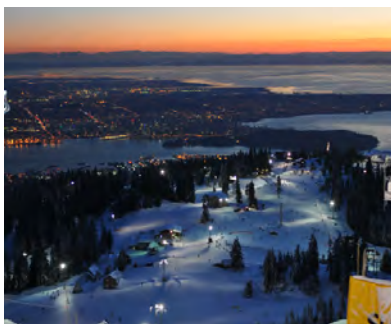
- 다운타운 서북쪽 위치, 면적 400만m², 뉴욕 센트럴 파크의 1.1배
- 1888년 당시 총독인 스탠리 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 해안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수족관 공연장, 수영장 등 자연과 함께 다양한 활동 가능함
- 주요 포인트 토템폴(장승), Prospect Point(전망대), English Bay

○ 잉글리쉬 베이 (English Bay)



- 다운타운 서쪽 끝자락에 접하고 있어 해변과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음
- 8월에는 국가별 불꽃놀이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림

○ 그라우스마운틴 (Grouse Mountain)



- 노스밴쿠버 위치. 해발 1,200m. 호텔에서 30분 정도 소요
- 여름에는 트레킹, 겨울은 스키 등 다양한 활동 가능
- 정상에서 밴쿠버 다운타운을 비롯한 전경 관람 가능 (정상까지 곤돌라 탑승)
- * 곤돌라는 15분 간격 운행하며, 최대탑승인원 100명 이상



○ 밴쿠버 아트갤러리 (Vancouver Art Gallery)



- 원래는 대법원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1983년부터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시작
- 빅토리아주 의사당과 페어몬트 엠프레스 호텔을 설계한 래트버리에 의해 설계된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
-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작품과 BC주 출신 아티스트인 에밀리카의 작품 다수 전시

○ 개스타운 (Gastown)



- 다운타운 동남쪽 위치, 밴쿠버 발상지로 알려짐
- 1867년 영국 증기선 선장이었던 존 데이튼이 정착, 최초 술집을 개점, 그의 별명인 Gassy Jack이 알려져 개스타운으로 불리게 됨
- 옛 밴쿠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기념품 가게, 특색 있는 상점, 개성 있는 식당 다수
- 주요 포인트: 증기시계(15분마다 증기배출), 개시객동상

○ 그랜빌 아일랜드 (Granville Island)



- 다운타운에서 Granville Bridge를 지나 남쪽에 위치
- 원래 공장단지였으나 리모델링 후, 관광지로 거듭남
-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접할 수 있으며, 기념품가게, 갤러리 소재
- 주요 포인트: 퍼블릭마켓(현지 시장)



○ 휘슬러 (Whistler Mountain)



- 밴쿠버 북방 120km 지점에 위치한 세계적 스키 관광지
- 스키장은 매년 1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개장되며 여름에도 휴양지로서 관광객을 위해 산정상까지 곤돌라 운행

○ 해리슨 온천 (Harrison Hot Springs)



- 밴쿠버시 동쪽으로 12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황 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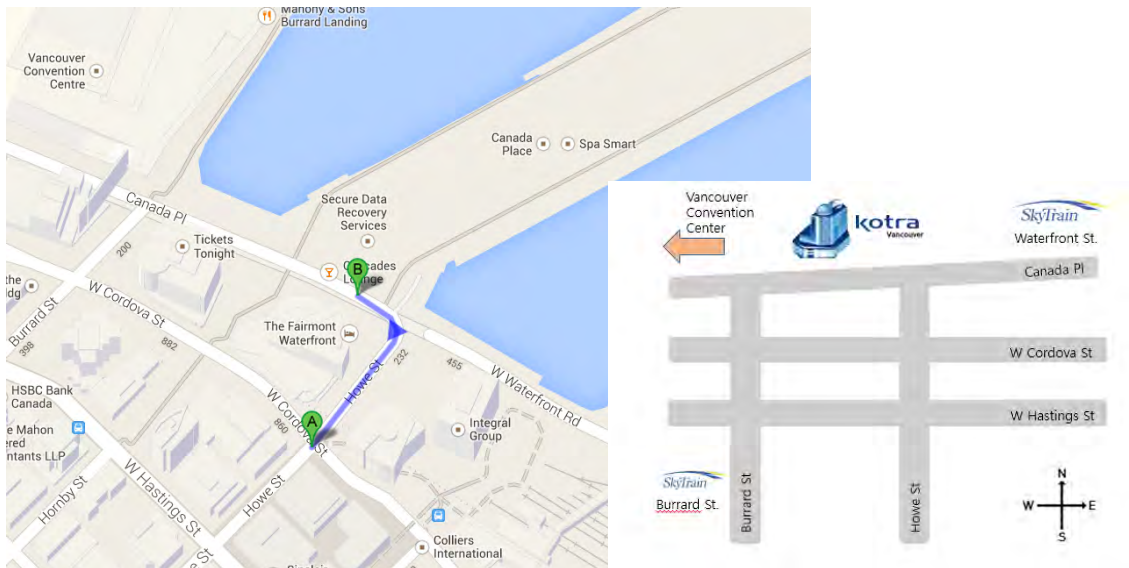
V. 무역관 오시는 방법

□ 밴쿠버 무역관 오시는 길

- 무역관 주소: #780 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V6C 3E1
- 전 화: 604.683.1820
- 팩 스: 604.687.6249
- 이메일: ktc@kotrayvr.com

- (스카이트레인) 밴쿠버공항(YVR Airport역)에서 다운타운(WaterFront역)까지 탑승요금은 2 Zone으로 C\$9.00, 소요시간은 약 30분

- WaterFront역(A)에서 도보로 무역관(B) 오는 길



- (택시) 공항에서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면 택시 승강장 표시가 있는 곳에서 순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음.
- 요금은 C\$35~40정도이며 소요시간은 약 25~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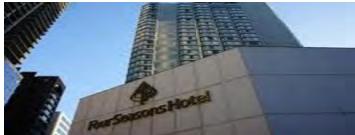


VI. 현지 유관기관 및 한식당 안내

□ 밴쿠버 총영사관

- 주소: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V6E 3V7
- 전화: 1-(604)-681-9581 / 팩스: 1-(604)-681-4864

□ 밴쿠버 주요 호텔

호텔명	전화	가격대	사진
The Pan Pacific Hotel	604.662.8111	C\$150-400	
The Four Seasons Hotel	604.689.9333	C\$230-350	
Hyatt Regency Hotel	604.683.1234	C\$199-264	
Hotel Vancouver	604.684.3131	C\$160-270	
Holiday Inn	604.879.0511	C\$99-127	

□ 밴쿠버 주재 기관 연락처

- 대한항공: 604.276.9535(공항), 604.689.2006(시내)
- 외환은행: 604.432.1984
- 한진해운: 604.682.8384
- 현대해운: 778.991.1212



□ 주요 식당 리스트

구분	식당명	전화	주소
한식	수라	604.687.7872	1518 Robson St., Vancouver
	장모집	604.687.0712	1575 Robson St., Vancouver
	북경반점 (한중식)	604.629.8822	1638 Robson St., Vancouver
중식	Shanghai Ding Tai	604.669.8816	469 Richards St., Vancouver
	Kirin Mandarin	604.682.8833	1172 Alberni St., Vancouver
일식	Aki	604.682.4032	1368 W. Pender St., Vancouver
	Kamei Royale	604.687.8588	211-1030 W.Georgia St., Vancouver
양식	Keg Steakhouse	604.685.4388	742 Thurlow St., Vancouver
	Seasons in the Park	604.874.8008	Queen Elizabeth Park, Vancouver

□ 주요 한국식품 취급점

식품점명	전화	주소
H-mart(다운타운)	604.609.4567	590 Robson St., Vancouver
H-mart(코quitlam)	604.939.0159	100-329 North Road, Coquitlam
한남수퍼마켓	604.420.8856	106-4501 North Road, Burbaby
김스마트	604.872.8885	523 E. Broadway, Vancouver

□ 여행사

여행사명	전화번호	주소
로얄관광	604.444.9821	207-4501 North Road, Burbaby
블루버드여행사	604.484.7000	540 Seymour St., Vancouver
스카이라인여행사	604.931.4112	610-329 North Road, Coquitlam

VII. 무역관 직원 연락처

□ 대표 전화: 1-604-683-1820 (내선번호 하기 참조)

성명	직위	모바일 (내선번호)
강영진	관장	1-604-813-5408 (ext.201)
김종상	차장	1-604-788-3024 (ext.203)
민준호	차장	1-604-908-9491(ext.204)



(※유첨) 캐나다 비즈니스 10계명

□ 캐나다는 캐나다다

- 캐나다를 미국 시장의 축소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는 미국과 유사하지만 다른 지역 특성 이해 필요
 - 미국과 이웃나라로 언어, 문화, 생활방식이 유사하나 국민성, 산업구조, 상거래 패턴 등 큰 차이가 있음을 유의
- 세계 2위의 국토면적에 비해 3500만의 인구를 가진 캐나다는 낮은 인구밀도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않아 시장 수요보다 틈새시장 발굴 필요
 - 제조업이 발달한 동부와 자원개발과 서비스업이 발달한 서부 등 지역 간 특색이 뚜렷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 진출 전략 수립 필요

□ 현지 문화를 이해하라

- 캐나다 시장은 동양과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현지 문화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시장이 보임.
 - 수정 도면 교체 시간, 작업장의 눈 채우는 것 등을 비용으로 산정
 - 바이어와 미팅 시 친한 사이가 아니면 식사, 커피 대접도 하지 않는 경우 많음.
- 한국인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품이 의외로 많이 유통되고 있음
 - 일반 자물쇠 선호, 아웃도어 점퍼는 대부분 모자와의 일체형 등

□ 현지에서 필요한 제품을 찾아라

- 한국에서 잘 팔린 제품이 현지에서 반드시 잘 팔리지 않음.
 - 현지에서 필요한 제품을 발굴, 공급하면 시장 진출이 훨씬 용이
- 전혀 안 팔릴 것 같은 제품이 의외로 인기가 있기도 함.
 - 젓가락 교정기(스시를 젓가락으로 먹는 로망), 유아용 매트(찬



기운 방지), 액세서리(의류보다 문신, 액세서리 선호) 등

□ 이민자 시장을 공략하라

- 캐나다 내 아시안계 이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특히, 중국(홍콩, 대만 포함), 필리핀, 인도 이민자의 기호와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 있음.
- 한류를 활용한 제품 홍보는 아시안계 이민자에게 상당한 프리미엄 마케팅 효과 있음.
 - N사의 라면시장 점유율 급증(7%⇒40 %)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 현지 규제에 대비하라

- 캐나다는 미국과 다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진출 희망 시 사전 준비 필요
 - 제품포장 시 공용어(영어 및 불어) 모두 표기
 - 원주민 소유 지역 이용 시 사전 승인 획득 필요
 - 제품에 따라 취득해야 할 각종 인증 및 규제가 다양함
- 인증이 없는 경우 수출은 말할 것도 없이 상담 자체도 성사가 어려움. 캐나다 필요한 인증은 미국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음.
 - 전자제품은 CSA 혹은 cUL(미국은 UL 등), 의약기기는 CSA, 보건 부의 Device License 필수
 - 수입 관련 현지 규제 허용치를 미준수해 최고급 샴워 헤드 판매가 실패한 사례가 있음.



□ 바이어도 사람이다

- 현지에서는 공식적인 루트보다 비공식 루트를 통한 비즈니스가 의외로 활성화돼 비즈니스에 앞서 인간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
-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더라도 이메일 등을 통해 친구 및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 향후 비즈니스 관계 형성에 매우 유리함.
- 캐나다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현재 거래처를 잘 안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만이 첫 거래가 가능하며 많은 시간 소요됨.
 - 가격 요소로만 거래처를 바꾸지 않음.

□ 대박을 쫓지마라 (눈에 보이는 작은 성과부터)

- 캐나다와 같이 비교적 성숙한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함.
 - 첫 거래 규모가 작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음. 국내 빙과류와 같이 초기 교포시장 중심으로 소량 수출하다가 연간 100컨테이너 물량으로 성장한 사례 있음.
 - 일부 바이어의 지나친 가격인하 및 소량 주문 등의 요구에도 가급적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성의 있게 대응하면 좋음.
- 해당 제품의 현지 유통구조를 찾기 위해 적절한 파트너 발굴 필요
 - 제품에 따라 유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맞는 파트너 발굴이 급선무



□ 한국계 진출기업을 활용하라

- 진출 초기에는 진입장벽이 크고 우리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현지 시장 개척 어려움.
 - 한국계 기업이나 유통업체를 활용하면 폭넓은 시장 접근 용이
 - 한 예로 국내 보안업체가 현지 기업에 보안 관련 부분 위임이 어려워 현지 진출에 실패한 사례가 있음.

□ 기진출 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라

- 현지 진출 시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현지 관행 이해 및 관련 기업을 소개받아 사전 이해 필요
- 현지는 보수적이고 현지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진입장벽이 많아 기진출 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예를 들어 플랜트 공정 수주시 Lump Sum 방식보다 Cost-plus fee 방식이 유리함(앞공정 진척상황, 기후 등 고려 필요).

□ 상생 전략으로 접근하라

- 구매자-판매자의 관계보다는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추진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의외로 빨리 찾아옴.
 - 현지에서는 기부문화가 보편화돼 있어 행사 시 각종 CSR 사업을 전개하면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됨.
- 나홀로 발전 모델을 고집할 경우 고립될 수 있음. 이는 현지 진출 외국 기업의 대부분이 상생 및 장기적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이기도 함.



www.kotra.or.kr